

# 대학생의 기숙사 생활 적응에 대한 주관성 연구\* : Q 방법론적 접근

윤정아<sup>1)</sup>

## Subjectivity on the Adaptation of University Students to Dormitory Lives : An Application of Q-methodology\*

Jeong Ah Yoon<sup>1)</sup>

요 약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적용하여 대학생의 기숙사 생활 적응에 대하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성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일개 대학 기숙사 거주 대학생 40명을 P표본으로 하여 총 186개의 Q 모집단으로부터 34개의 Q표본을 선택하여 9점 척도 상에 강제 분포하도록 하였으며, 대상자를 인터뷰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자료는 QUANL program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4개의 유형이 발견되었으며,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적응해 가는 '관계지향형', 자유를 추구하고 외부활동을 활발히 하는 '자유지향형', 처음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하는 '독립지향형', 개인적인 공간과 사생활에 대해 존중받기 원하는 '개인지향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학교 적응과 기숙사 생활 적응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각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차별화된 대학차원에서의 환경적 개입과 심리 상담 적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 대학생, 기숙사 생활, 적응, 주관성, Q 방법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identify the types of the human's subjectivity toward the adaptation of University students to dormitory lives. This study is exploratory research through Q-methodology. From 186 Q population, we selected 34 Q sampling. Q-sorting was done by 40 of P-sample. When the Q-sorting is completed on 9 point scal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identify 4 types of the adaptation of University students to Dormitory Lives. Type 1 is adapting go through the positive human relationships, 'Relationship oriented', Type 2 is the freedom to pursue an active outdoor activities, 'Free oriented', Type 3 is the first time based on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to be alone, 'Independent oriented', and Type 4 is want to receive respect for human space and privacy, 'Individual Oriented'.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that appropriate environmental intervention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method at the university level should be based on this tendency.

Received (April 25, 2016), Review Result (May 9, 2016)

Accepted (May 16, 2016), Published (July 31, 2016)

<sup>1)</sup>608-711 Dept. Nursing, Tongmyong Univ., 428 Sinseon-ro, Nam-gu, Busan, Korea

email: [yja9476@hanmail.net](mailto:yja9476@hanmail.net)

\*이 논문은 2014학년도 동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2014A023].

Keywords : University students, Dormitory Lives, Adaptation, Subjectivity, Q methodology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 후기에 속하는 대학생들은 새로운 대학생활에 적응해 가는 한편, 신체·생리적인 발달과 더불어 개인적 자유를 확장하며, 심리적으로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된다[1]. 이와 같이 인생의 중요한 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의 기숙사 생활은 각 개인에게 주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숙사의 운영은 학생들에게 주거 편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생활을 통한 개인생활, 학교생활, 대인관계에 대한 적응을 위한 교육활동이 조직적으로 제공되어[1], 대학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보다 알찬 학업성취와 만족한 대학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2].

현재 단순한 주거의 기능이 아닌 독립된 주요 교육시설의 하나로 기능하는 대학 기숙사는 최근 지방사립대학들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충원과 재학생 탈적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통계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따라 대학정원과 고교졸업생 수를 비교하면 현재 대입정원 약 56만 명이 유지될 경우 학령인구 감소로 2023년에 최소 16만 명의 대입정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3]. 따라서 대학들은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대학 기숙사는 학교 시설가운데 타 지역 연고학생들의 주거를 해결하고, 연장된 교육공간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4]. 그러나 기숙사에서 집단생활은 여러 학과와 다양한 출신지역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2], 여러 다른 이유로 기숙사를 선택하였으며, 각 개인의 거주공간이 주는 영향 또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기숙사 생활 적응이 어떻게 유형화 될 수 있고, 각 유형에 따라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유형에 따른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기숙사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기숙사 생활 적응에 대하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성 구조를 파악하고, 그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생의 기숙사 생활 적응에 대한 주관성의 유형을 파악한다.
- 2) 대학생의 기숙사 생활 적응에 대한 주관성의 유형별 특성과 차이점을 확인한다.

## 2. 연구방법

Q 방법론은 개인의 잠재적 행위인 주관적 자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고안되어 인간의 주관성 구조에 따른 각 유형별 특성 이해가 가능하므로[5], 본 연구는 대학생의 기숙사 생활 적응에 대한 주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Q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 2.1 Q 표본구성

본 연구에서는 기숙사생활 적응에 관련된 문헌[2][6-10]을 검토하였으며, 일개 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술문 자료가 포화되는 시점까지 '입학 전 기숙사 생활에 대해 가졌던 기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숙사 생활을 잘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처음에 낯선 기숙사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총 186개의 Q 모집단을 추출하였다. 이 진술문들은 Q 방법론으로 여러 편의 논문을 작성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들이 협의하여, 문항별로 진술이 중복되거나 모호한 문항을 정리하고 수정 보완한 후 최종적으로 34개의 Q 진술문을 결정하였다.

### 2.2 P 표본선정

Q 방법론은 개인간의 차이(Interindividual difference)가 아니라 개인내의 중요성의 차이(intraindividual difference in significance)를 다루는 것이므로 Q 방법론의 특성상 P 표본의 수는 요인을 생성하고 요인들 간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5]. 본 연구의 P 표본은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일개 대학의 대학생 중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하는 총 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별, 연령, 전공, 기숙사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선정하였다.

### 2.3 Q 분류

Q 표본으로 선정된 진술문이 적힌 카드를 P 표본인 대상자에게 제시하여 34개의 카드를 읽은 후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가장 부정하는 것(-4)에서부터 중립(0), 가장 긍정하는 것(+4)으로 9점 척도 상에 강제 정규 분포하도록 하였다[표1]

[표 1] Q 소팅 분포도

[Table 1] Q Sorting Distribution

	적극부정		←		중립		→		적극긍정	
점수	-4	-3	-2	-1	0	+1	+2	+3	+4	
카드수	2	3	4	5	6	5	4	3	2	

##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가장 부정하는 경우에 1점에서부터 가장 긍정하는 경우에 9점까지 점수화하여 PC QUANL 프로그램으로 Q 요인분석 하였다. 이상적인 요인수의 결정을 위하여 아이젠(Eigen) 값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의 수를 다양하게 입력시켰으며, 산출된 결과를 통해 이상적이라고 판단된 4개의 유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Q 유형의 형성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기숙사 생활 적응에 대한 주관성 유형은 4개의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4개의 요인은 전체변량의 40%를 설명하였고, 각 요인별 설명력을 보면 [표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요인 1은 22%, 요인 2는 7.1%, 요인 3은 6.8%, 요인 4는 3.9%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40명은 유형 1에 14명, 유형 2에 13명, 유형 3에 7명, 유형4에 6명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설명력이 큰 대상자 즉, 아이젠 값이 1.0이상을 보인 학습자들의 심층면담 결과를 중점 활용하였다[표3].

[표 2] 유형별 아이젠 값과 변량

[Table 2] Eigenvalues and Variance

구분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아이젠값	8.92	2.85	2.72	1.58
변량	0.22	0.07	0.06	0.03
누적변량	0.22	0.29	0.36	0.40

### 3.2 각 유형의 특성

#### 3.2.1 유형 1 : 관계지향형

유형 1로 분류된 대상자는 모두 14명으로 남학생 3명, 여학생 11명이었고, 1학년 3명, 2학년 8명, 3학년이 1명, 4학년이 2명이었다. 기숙사 거주기간은 6개월 6명, 1년 6개월 5명, 2년 6개월 1명, 3년 6개월 2명이었고 전공은 공학계열 6명, 보건의료계열 3명, 교육계열 2명, 인문·사회계열 2명, 예체능계열 1명이었으며, 출신지는 경상도 12명, 경기도 1명, 전라도 1명 이었다. 유형 1은 친한 기숙사 동기들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았고(표준점수 =1.88), 타지 생활을 하는 친구들과끼리 외롭지 않게 서로 도와가며 지낸다고 하였다(표준점수=1.65). 또한 집에서 나의 위치가 없어지는 것 같다(표준점수=-2.18)와 각자 다른 나이 다른 학과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다보니 의견 충돌이 생긴다(표준점수=-1.79) 등의 항목에서 강한 반대의견을 보였다[표4].

유형 1에서 가장 높은 인자 가중치 2.87을 보인 23번 대상자는 가장 찬성한 항목으로 ‘친한 기숙사 동기들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많이 된다’와 ‘타지생활을 하는 친구들과끼리 외롭지 않게 서로 도와가며 지낸다’를 선택하였고, 이를 선택한 이유는 “기숙사 친구들을 통해 학교생활이 더욱 윤택해졌고”, “ 모두 타지에서 와서 외롭지 않게 서로 도와간다”고 답변하였다.

[표 3] 유형별 P 표본의 특성 및 인자가중치(n=40)

[Table 3] The Characteristics of P sample and Weighting Factors

유형(n)	대상자 번호	성별	학년	기숙사 거주기간	전공	출신지	인자 가중치
유형1 (n=14)	23	여	2	6개월	공학	경상	2.87
	18	여	3	2년 6개월	인문	전라	1.68
	20	여	1	6개월	교육	경상	1.51
	6	남	2	1년 6개월	공학	경상	1.33
	19	여	1	6개월	교육	경상	1.10
	5	남	2	1년 6개월	공학	경상	0.77
	15	여	1	6개월	보건의료	경기	0.76
	34	여	2	6개월	공학	경상	0.67
	9	여	2	1년 6개월	사회	경상	0.65
	30	여	4	3년 6개월	보건의료	경상	0.65
	37	남	2	6개월	공학	경상	0.54
	28	여	4	3년 6개월	보건의료	경상	0.54
	11	여	2	1년 6개월	예체능	경상	0.53
	24	여	2	1년 6개월	공학	경상	0.44
유형2 (n=13)	39	여	4	2년 6개월	인문	경상	0.97
	1	남	2	1년 6개월	공학	경상	0.90
	35	남	2	3년 6개월	군사학	경상	0.78
	17	여	4	3년 6개월	보건의료	경상	0.76
	12	여	4	2년 6개월	공학	경상	0.65
	8	여	2	1년 6개월	예체능	경상	0.64
	10	여	2	1년 6개월	공학	강원	0.58
	13	여	2	1년 6개월	예체능	경상	0.57
	3	남	2	6개월	공학	경상	0.53
	25	여	3	2년 6개월	보건의료	경상	0.53
	27	여	3	1년 6개월	보건의료	전라	0.51
	4	남	2	1년 6개월	보건의료	서울	0.48
	38	남	2	1년 6개월	공학	경상	0.30
유형3 (n=7)	22	여	2	6개월	보건의료	전라	1.14
	40	여	2	1년 6개월	예체능	경상	0.89
	31	여	3	2년 6개월	보건의료	경상	0.69
	14	여	1	6개월	보건의료	경상	0.60
	33	여	4	2년 6개월	보건의료	경상	0.49
	32	여	3	2년 6개월	보건의료	경상	0.41
	26	여	3	6개월	보건의료	경상	0.11
유형4 (n=6)	36	남	1	6개월	공학	경상	0.98
	16	여	3	2년 6개월	보건의료	전라	0.70

29	여	4	3년 6개월	보건의료	경상	0.51
21	여	2	6개월	보건의료	경상	0.44
7	여	2	1년 6개월	보건의료	경상	0.37
2	남	1	6개월	사회	경상	0.32

[표 4] 유형1에서 표준점수 +1.0000이상 또는 -1.0000이하를 보인 항목

[Table 4] Descending Array of Z-scores and Item Description for Type 1(>+1.0000, <-1.0000)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26	친한 기숙사 동기들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이 많이 된다.	1.88
27	타지 생활을 하는 친구들끼리 외롭지 않게 서로 도와가며 지낸다.	1.65
28	기숙사 친구들과 얘기하고 대화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1.42
20	기숙사에는 매점, 세탁실 등 편의시설이 중요하다.	1.42
2	기숙사 생활에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중요하다고 본다.	1.35
4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한다.	1.19
3	친구들과 생활하면서 같이 사는 법을 알게 되는 것 같다.	1.18
11	자기만의 생활이 없다는 게 힘들다.	-1.34
12	룸메이트와 시간적 리듬(취침, 기상, 휴식시간)이 맞지 않을 때 방해받는 것 같아 힘들다.	-1.35
31	형식적인 사이로 생각되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기가 힘들다.	-1.66
30	각자 다른 나이, 다른 학과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다보니 의견충돌이 생기기도 한다.	-1.79
15	집에서 나의 위치가 없어지는 것 같다.	-2.18

반면, 가장 반대한 항목으로 ‘룸메이트와 시간적 리듬(취침, 기상, 휴식시간)이 맞지 않을 때 방해받는 것 같아 힘들다’와 ‘집에서 나의 위치가 없어지는 것 같다’였다. 이를 선택한 이유는 “시간이 잘 맞았었고 방해 받은 적이 없었다”, “집에 자주 안 가게 되서 오히려 집에서 더 찾는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를 종합해볼 때 유형 1은 14명 중 1, 2학년이 11명을 차지한 것으로 보아 처음 타지에 와서 대학생활을 함에 있어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대상이 기숙사 동기였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기숙사 동기들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하였으며, 외롭지 않게 서로를 지지하였고, 서로 대화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등 인간관계를 통해 기숙사 생활에 적응해갔다. 또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가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긍정적인 경험 속에서 성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유형 1을 ‘관계지향형’으로 명명하였다.

### 3.2.2 유형 2 : 자유지향형

유형 2로 분류된 대상자는 모두 13명으로 남학생 5명, 여학생 8명이었고, 2학년 8명, 3학년이 2명, 4학년이 3명이었다. 기숙사 거주기간은 6개월 1명, 1년 6개월 7명, 2년 6개월 3명, 3년 6개월 2명이었고 전공은 공학계열 6명, 보건의료계열 3명, 교육계열 2명, 인문·사회계열 2명, 예체능계열 1

명이었으며, 출신지는 경상도 12명, 경기도 1명, 전라도 1명 이었다.

유형 2는 기숙사생활에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중요하다고 보았고(표준점수=2.24),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였다(표준점수=2.23). 한편 부모님의 간섭이 없어져서 해방감이 든다고 하였으며(표준점수=2.09), 친구들이랑 주말에는 놀러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였다(표준점수=1.34). 반면 기숙사 개인실 책상에서 주로 대부분의 모든 일을 해결한다(표준점수=-1.22)와 집에서 나의 위치가 없어지는 것 같다(표준점수=-2.38) 등의 항목에서 강한 반대 의견을 보였다[표5].

유형 2에서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 0.97을 보인 39번 대상자는 가장 찬성한 항목으로 ‘싫은 사람도 계속 부딪히는 것이 힘들다’와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한다’를 선택하였다. 이를 선택한 이유는 “마음에 안 들고 사는 패턴이 안 맞아도 계속 같이 지내야 한다”, “사는 곳도 다르고 방식이 다르니까 예의를 지키면서 지내야 트러블이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반면 가장 반대한 항목으로는 ‘친구들과 생활하면서 같이 사는 법을 알게 되는 것 같다’와 ‘기숙사 개인실 책상에서 주로 대부분의 모든 일을 해결 한다’였다. 이를 선택한 이유는 “기숙사에서는 거의 잠만 잔다”, “기숙사에서는 잠만 자거나 공부만 한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를 종합해볼 때 10명의 남학생 중 5명이 2 유형에 속해있고, 다른 유형에 비해 1학년이 1명도 없고 주로 2학년과 3, 4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어느 정도 대학생활에 익숙해지게 됨에 따라 답답한 기숙사 안에서 생활하기 보다는 친구들과 자유롭게 외출하고 활동적인 부분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는 자유로운 생활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2학년 이상이 되면서 어느 정도 대학생활에 적응하게 되고 집에 가는 경비나 학업으로 인해 주말마다 집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일종의 해방감도 느끼고 친구들과 함께 자신만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유형 2를 ‘자유지향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5] 유형2에서 표준점수 +1.0000이상 또는 -1.0000이하를 보인 항목

[Table 5] Descending Array of Z-scores and Item Description for Type 2(>+1.0000, <-1.0000)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2	기숙사 생활에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중요하다고 본다.	2.24
4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한다.	2.23
1	부모님의 간섭이 없어져서 해방감이 든다.	2.09
32	친구들이랑 주말에는 놀러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1.34
5	정해진 규칙을 따르다 보니 좀더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다.	-1.00
34	기숙사 개인실 책상에서 주로 대부분의 모든 일을 해결한다.	-1.22
14	다른 사람과 함께 화장실을 쓰고 샤워를 하는 것이 힘들다.	-1.33
15	집에서 나의 위치가 없어지는 것 같다.	-2.38

### 3.2.3 유형 3 : 독립지향형

유형 3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모두 7명으로 여학생 8명이었고, 1학년 1명, 2학년 2명, 3학년이 3명, 4학년이 1명이었다. 기숙사 거주기간은 6개월 3명, 1년 6개월 1명, 2년 6개월 3명이었고, 전공은 보건의료계열 6명, 예체능계열 1명이었으며, 출신지는 경상도 6명, 전라도 1명 이었다.

유형 3은 기숙사 친구들과 얘기하고 대화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표준점수=2.03)고 하였으며, 가족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는 것 같다(표준점수=1.64), 문득 가족이 그림고 허전하고 혼자인 것 같다(표준점수=1.15)의 항목에서 강한 찬성을 보였다. 한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사람들이 북적이는 변화한 곳에 가서 놀아온다(표준점수=-1.74)와 학교가 가깝다보니 잠이 많아지고 나태해지는 경향이 있다(표준점수=-2.38) 등의 항목에서 강한 반대의견을 보였다[표6]

유형 3에서 가장 높은 인자 가중치 1.14를 보인 22번 대상자는 가장 찬성한 항목으로 ‘기숙사 생활에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중요하다고 본다’와 ‘홀로서기에서 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를 선택하였다. 이를 선택한 이유는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서로 생활패턴이나 방식이 잘 맞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친구의 상황과 생활을 존중하며 배려해야 한다”, “기숙사는 친구들도 항상 같이 있고 혼자만 있는 공간이 아니지만 청소나 생활용품, 먹는 것 까지 혼자 챙겨할 것을 스스로 챙기면서 책임감이 생긴다”라고 답변하였다. 반면 가장 반대한 항목으로는 ‘학교가 가깝다 보니 잠이 많아지고 나태해지는 경향이 있다’와 ‘형식적인 사이로 생각되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기가 힘들다’였다. 그 이유는 “오히려 나태해지기보다는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다른 시간을 공부나 개인 여가시간에 투자할 수 있어서 나태해진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 “많은 시간보내면서 서로 마음이 잘 맞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한다면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를 종합해볼 때 유형 3은 보건의료계통의 학생이 7명중 6명을 차지하고, 3, 4학년이 4명을 차지하는 바 전공특성 상 다른 전공 학생에 비해 임상실습과 이론을 병행하게 되는 특수한 교과과정에 따라 좀 더 많은 책임감과 배려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 외출을 잘 하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외로움, 허전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유형 3을 ‘독립지향형’이라고 명명하였다.

[표 6] 유형3에서 표준점수 +1.0000이상 또는 -1.0000이하를 보인 항목

[Table 6] Descending Array of Z-scores and Item Description for Type 3(>+1.0000, <-1.0000)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2	기숙사 생활에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중요하다고 본다.	2.14
28	기숙사 친구들과 얘기하고 대화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2.03
16	가족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는 것 같다.	1.64
17	문득 가족이 그림고 허전하고 혼자인 것 같다.	1.15
7	홀로서기에서 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1.07
21	기숙사는 휴게실이나 오락실, 운동 관련 시설 등의 여가활동 시설물이 중요하다.	-1.19



31	형식적인 사이로 생각되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기가 힘들다.	-1.12
8	기숙사의 짜여진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다.	-1.29
33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사람들이 북적이는 변화한 곳에 가서 놀다 온다.	-1.74
24	학교가 가깝다 보니 잠이 많아지고 나태해지는 경향이 있다.	-2.38

### 3.2.4 유형 4 : 개인지향형

유형 4로 분류된 대상자는 모두 6명으로 남학생 2명, 여학생 4명이었고,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이 1명, 4학년이 1명이었다. 기숙사 거주기간은 6개월 3명, 1년 6개월 1명, 2년 6개월 1명, 3년 6개월 1명이었고 전공은 보건의료계열 4명, 교육계열 2명, 인문·사회계열 1명, 공학계열 1명이었으며, 출신지는 경상도 5명, 전라도 1명 이었다.

유형 4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한다(표준점수=2.72), 기숙사 생활에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중요하다고 본다(표준점수=2.29)와 내 소유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거나 사용하는 것이 거슬린다(표준점수=1.34)의 항목에서 강한 찬성을 보였다. 반면 정해진 규칙을 따르다 보니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다(표준점수=-1.24), 학교가 가깝다보니 잠이 많아지고 나태해지는 경향이 있다(표준점수=-1.76)와 집에서 나의 위치가 없어지는 것 같다(표준점수=-2.24) 등의 항목에서 강한 반대의견을 보였다[표기].

유형 4에서 가장 높은 인자 가중치 0.98을 보인 36번 대상자는 가장 찬성한 항목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 한다’와 ‘다른 사람과 함께 화장실을 쓰고 샤워를 하는 것이 힘들다’를 선택하였다. 이를 선택한 이유는 “예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생활이 엉망이 된다고 생각한다”, “기숙사 생활 중 가장 불편한 점이 다른 사람과 화장실을 쓰고 샤워를 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반면 가장 반대한 항목은 ‘정해진 규칙을 따르다 보니 좀 더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다’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마음이 더 넓어지는 것 같다’였다. 이를 선택한 이유는 “정해진 규칙도 생각보다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이행되는 부분에 불편사항이 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 불편한 사항이 겹쳐져 오히려 마음이 더 좁아진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유형 4는 1학년이 6명 중 3명을 차지하고, 기숙사 생활을 한지 6개월 미만인 관계로 개인적인 공간과 사생활 보호가 되었던 집과는 달리 다양한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함에 있어 많은 부분에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관계지향형에 속하는 1유형과 다르게 4 유형은 ‘기숙사 친구들과 얘기하고 대화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에서 강한 부정을 나타냈고, ‘룸메이트와 시간적 기쁨(취침, 기상, 휴식시간)이 맞지 않을 때 방해받는 것 같아 힘들다’에서 강한 긍정을 나타내었다. 이들은 규칙이나 규범에 얽매이는 것도 불편해하였으며, 다양한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과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당하는 것에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유형 4를 ‘개인지향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7] 유형4에서 표준점수 +1.0000이상 또는 -1.0000이하를 보인 항목

[Table 7] Descending Array of Z-scores and Item Description for Type 4(>+1.0000, <-1.0000)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4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한다.	2.72
2	기숙사 생활에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중요하다고 본다.	2.29
10	내 소유의 물건을 허락없이 만지거나 사용하는 것이 거슬린다.	1.34
1	부모님의 간섭이 없어져서 해방감이 든다.	-1.17
5	정해진 규칙을 따르다 보니 좀더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다.	-1.24
25	학교가 가깝다 보니 잠이 많아지고 나태해지는 경향이 있다.	-1.76
15	집에서 나의 위치가 없어지는 것 같다.	-2.24

####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기숙사 생활 적응에 대한 주관성의 유형을 파악하고, 유형별 특성과 차이점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효율적이고 지지적인 기숙사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도되었다. 대학생의 기숙사 생활 적응은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각각 관계지향형, 자유지향형, 독립지향형, 개인지향형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자 중 14명을 차지한 유형 1은 '관계지향형'으로 나타났는데, 기숙사 생활 적응에 있어 함께 지내고 있는 기숙사 동기들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배려와 예의를 바탕으로 외로운 타지 생활 속에서 서로를 도와가며 지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얘기하고 대화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유형으로, 기숙사내에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본다. 대학생의 기숙사 생활만족도 관련변인 분석[1]에서 학생들이 휴게공간을 필요로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에도 나타났듯이 관계를 중요시 하는 1유형에 있어 매점이나 다양한 휴식공간의 편의시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소규모라도 학생들의 휴게 및 문화공간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유형 2인 '자유지향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떨어져 자유를 만끽하고 해방감을 느끼고 있으며 집에 내려가지 않는 주말에는 학교 밖으로 놀러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신분이나 경제적인 사정 상 충분한 교외생활을 즐기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주말에 남아 있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외 프로그램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

유형 3인 '독립지향형'에 속한 사람들은 홀로서기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였다. 이는 여대생의 기숙사 생활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7]에서 나타난 본질적인 주제가 기숙사생활을 하는 동안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홀로 서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기숙사 거주 여대 신입생들이 입학 후 일상생활에서 주로 경험하는 과정이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외로움 이었다고 보고된 것[8]과 같이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다보면 허전하고 외로운 마음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자칫 학교 부적응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신입생들은 특히 부모의 사랑과 지지가 필요하고

그리워하고 있으므로 정기적인 '부모 방문의 날' 등 가족과의 연계를 지원하는 대학차원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대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9] 이를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화방이나 기숙사내 다양한 커뮤니티나 동아리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개인지향형'으로 명명한 유형 4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했으며, 내 소유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거나 사용하는 것을 싫어했으며, 룸메이트와 시간적 리듬이 맞지 않아 사생활 침해 받을 때 가장 힘들어했다. 요즘은 대부분이 외동이거나 형제가 적고 독립적인 공간에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단체로 생활해야 하는 개인지향형 학생들은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보였다. 이는 늦게 들어오거나 누군가를 방에 데리고 오는 것, 큰소리로 전화하는 것 등에서 불편함을 주로 느꼈다는 연구결과[8]와 일치하는 것으로, 그 때 그 때 터놓고 대화하는 방법이나 올바른 의사소통 능력증진을 위한 교육이나 공동생활에서 동의하는 내부 규칙을 정하고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강화하고, 대학기숙사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방음과 같은 기숙사실 내에 확실한 개인 공간 확보[10]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학교 적응과 기숙사 생활 적응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타 지역에서 온 재학생들의 탈적률을 감소시키고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차별화된 대학차원에서의 환경적 개입과 심리 상담 적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M. H. Cho, Seowon University Dormitory life Satisfaction related Variable Analyzed. Journal of Student Guidance, (2003), Vol 21, pp.165-174.
- [2] Y. J. Son, A study on Satisfaction, Anxiety and Self-esteem of Dormitory Students. Journal of Cheju Hanla University. (2010), Vol.33, pp.55-65.
- [3]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60>, Feb 25 (2016)
- [4] J. G. OH, An Area Analysis of Common and Living Space in University Student Housing: A Comparison between the Existing and New Student Housing.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008), Vol.10, No.1, pp.73-80.
- [5] H. G. Kim, Q methodology : philosophy, theories, analysis, and application., Communication Books, Seoul (2008)
- [6] S. W. Park,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on the Adaptation of Alternative High School Students to Dormitory Lives. Master thesis, (2010), Kong Ju National University.
- [7] G. S. Choi,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Dormitory Life Experience of Female College Student. Master thesis, (1997), Ewha University.
- [8] J. S. Jin, The College Life Adaptation Experience of Female Freshmen in Dormitory.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014)**, Vol29, pp.205-236.

- [9] S. Y. Min, Depression, an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f University Student Residing in Dormitorie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13)**, Vol.22, No.4, pp.265-272.
- [10] H. J. Woo, A study on Residential Satisfaction in University Dormitory. Master thesis, **(2012)**, Kyung Hee University.